

0. 서론

수리논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리논술은 매우 어려운 시험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답을 제대로 적지도 못하고 학교에 5만원을 갖다 바칠 뿐이라는 회의론자부터 하스스톤처럼 기도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진성 돌창까지. 학생들은 수리논술을 상당히 멀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학교는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고교 과정에서 중시되지 않는 주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다수가 아니며, 학생들의 수리논술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수리논술이 이전까지 해오던 일반적인 시험과는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접하는 시험은 시험지가 주어지고 답만 어떻게든 맞추면 점수를 얻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리논술에서는 문제의 답을 도출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평가요소가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답만 맞추면 되는 시험을 12년간 치러온 학생들에게는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12년 동안이나 답을 얻는 과정을 이미 열심히 수행해왔습니다. 단지 그 과정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기에 각 잡고 과정을 풀어 쓰는 것이 어색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과정을 조금 더 잘 다듬기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좀 더 과정에 신경 쓰고, 풀이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 그것이 충분히 논리적인가를 꼼꼼히 따져본다면 수리논술을 풀이함에 있어 그렇게 낯설지 않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땀을 쏟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결코 수리논술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논술 전형의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수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한다면 정시를 버리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수리논술을 학원까지 다니면서 준비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경향을 익히는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